

2023년 IL(Independent Living)과 젠더포럼




젠더적 관점으로 IL 판을 흔들자

• 수어, 문자 통역이 진행됩니다.

일 시 2023년 11월 23일 (목) 오후 2:30~5:30

장 소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주 최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지 원  서울특별시

장애여성공감 소개

장애여성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장애여성을 배제하는 제도와 기준이 가진 문제에 공감하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1998년에 창립했습니다. 장애여성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며,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움직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소개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은 탈시설, 독립 생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혼자, 또 함께 의존과 돌봄이 가능한 독립을 만들어갑니다. 젠더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며 동료들과 연대를 통해 시설사회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여성독립생활 운동의 논의를 주요 의제로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기 위해서 IL운동의 방향과 역할을 제안하며 공동행동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전체 진행 일정

시간	주제	구분	역할(소속)
14:30~14:40 (10')	1부 발표	사회	이진희(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14:40~14:50 (10')		인사말	조미경(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이형숙(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14:50~15:05 (15')		활동보고	정주희(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활동가)
15:05~15:25 (20')		발표 ①	진은선(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소장)
15:25~15:45 (20')		발표 ②	수키(전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담당 활동가)
15:45~16:05 (20')		발표 ③	임은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
16:05~16:20 (15')	쉬는시간		
16:20~16:35 (15')	2부 토론	토론 ①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16:35~16:50 (15')		토론 ②	김상희(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16:50~17:05 (15')		토론 ③	정다운(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실장)
17:05~17:35 (30')		질의응답/ 마무리	이진희(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목차

	필자	쪽수
1 부		
활동보고	정주희	4
젠더적 관점으로 장판을 함께 흔들어 보자	진은선	10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고민들	수키	20
장애여성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임은현	24
2 부		
거듭나기, 운동하기, 조직-화, 리더링, 함께 살아가기라는 과제	김혜정	29
성평등한 조직 문화로 나아가기 위해선 도전적 질문을 멈춰서는 안 된다!	김상희	33
장애인운동 현장에서 젠더적 관점 논의를 위한 고민과 실천	정다운	36

장판 흔들자 활동보고

정주희(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활동가)



2023년 IL (Independent Living)과 젠더포럼	목차
<h2>장애여성이 판을 새로 흔들자!</h2> <h3><장판, 흔들자!> 활동보고</h3>	1 장판, 흔들자! 활동 목적
	2 6.13. <장판, 흔들자!> 서울 모임
	3 7.15. <장판, 흔들자!> 대구 모임
	4 10.18.~20. <장판, 흔들자!> 서울 워크숍
	5 발표자 임은현, 고숙희 활동영상

1. <장판, 흔들자!> 활동 목적

비장애/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에서 장애여성의 감수성, 몸의 경험이
운동의 기조와 원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음.
조직적으로 장애여성활동가, 장애여성리더의 역할이 논의되지 않음.
실무 능력을 요구하는 현장의 구조, 장애 당사자가 활동하기 어려운 현재.

장애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분투의 과정을 공유하자!

IL 운동 현장에서 실천해온 장애여성의

독립생활 운동 경험을 관점이자 투쟁으로 드러내자!

IL운동 현장의 변화와 실천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토론하자.

2. <장판, 흔들자!> 서울모임



일시: 2023.6.13. 장애여성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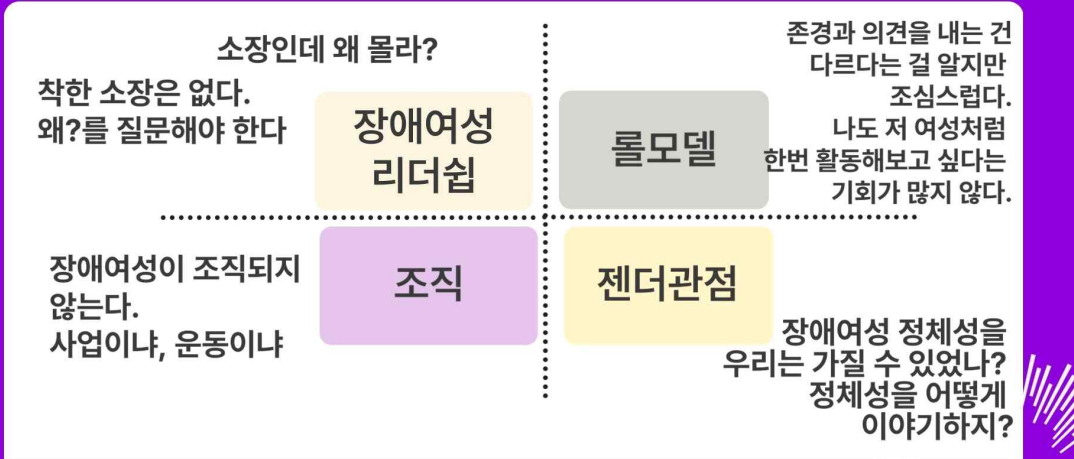
참여:

문애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박경미(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라나(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주제:

IL센터 장애여성 소장들과의
장애여성리더쉽 토론

2. <장관, 흔들자!> 서울모임



3. <장관, 흔들자!> 대구모임



일시: 2023.7.15. 대구 리버틴호텔

참여: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자조모임 날라리)
김정희, 장현이, 장희선, 강미영, 임은현

주제:
장애여성자조모임 날라리의 역사,
현재 활동의 고민

3. <장판, 흔들자!> 대구모임

여자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고 할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었고, 장애인여성들끼리 모여서 뭐가 힘든가. (연애, 섹스 등)

자조모임
의미

요청하는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이게 뭐고, 날라리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게.
평가도 같이 해야 하고

상근활동가
-회원 관계

상근활동

저는 (상근활동가) 하고 싶지만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일처리 능력)

4. <장판, 흔들자!> 서울 워크숍



일시: 2023.10.18.-20.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참여:
문애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고숙희 (전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담당
활동가)
이수나, 이은경, 정선경, 임은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

주제:
장애여성활동가의 독립과 활동,
장애여성활동가의 역할

4. <장판, 흔들자!> 서울 워크숍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
활동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의
책임

내가 다 책임져야하는
부담감. 정말 힘들.
내가 어떻게 해결해나가야할지.
구분되어 있음.
같이 협력할 계기 없음. 고민하는 자리 없음.

논의구조

센터에서 여성장애인활동가의
역할을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센터 안의 권력관계

장애여성의
경험, 관점

장애여성
활동가

4. <장판, 흔들자!> 서울 워크숍

장애여성활동가의 역할

조직하는 역할. 왜, 누구를, 무슨 얘기를.

장애여성들이 소리를 높일 수 있는 숨구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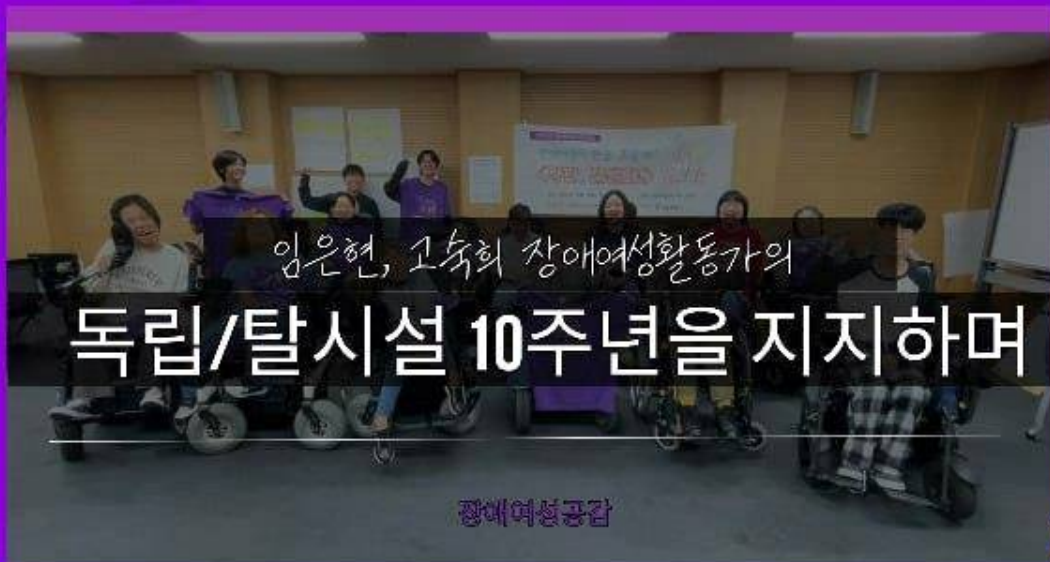
장애여성활동가 정체성을 알리는 일. 보여지는 그대로.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게.

4. <장판, 흔들자!> 서울 워크숍

앞으로의 하고 싶은 활동

정기적으로 토론토 하고 이야기하는 자리.
장애여성활동가들의 전국 네트워크.
산부인과, 자위, 연애, 월경, '시설병'

장애여성운동 우리가 만들까?
모두가 섞이는 같이 이야기하는 자조모임



젠더적 관점으로 장판을 함께 흔들어 보자

진은선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소장)

장애여성 운동과의 만남, 흔들림으로 형성된 나의 정체성

나는 중증장애여성이다. 나와 같은 장애를 가진 엄마, 쌍둥이 언니. 쌍둥이 자매, 엄마도 장애인인 그 집.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특히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자연스러울 만큼 유명했다. ‘장애인끼리 같이 사는 게 힘들지 않느냐’는 말은 다반사였고 일상에서 매일 부딪히는 관계와 갈등은 모두 내가 장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2015년 나는 장애여성공감(이하 공감)을 만나고 처음으로 장애여성으로서 삶을 고민했다. 장애여성으로 살아왔지만, 사회에서 장애여성으로 호명되거나 정체성을 고민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 장애학생을 특정하여 멘토-멘티로 이어지는 활동 속에서 이대의 리더십아카데미를 찾아가서야 공감을 처음 알게 되었다. 공감에서 실습을 하면서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고 내 경험을 지지하는 동료들이 있어 활동에 도전을 주었다. 아마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장애여성의 경험으로 삶을 돌아볼 기회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활동한다는 건 눈치 보고 맞추던 몸에 밴 익숙한 관계들을 바꾸는 일이었다. ‘이렇게 사주지 않아도 괜찮다. 너의 삶이 궁금하다. 모두가 그럴 거다’ 동료에게 무언가 계속 사는 나를 보며 한 동료가 말했다. 이 말은 그동안 내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돌아보게 했다.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지만 관계가 끊어질까 봐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눈치 보고 솔직한 감정을 숨기는 모습을 보고 말해줬던 것이었다. 이런 모습들을 계속 깨나가지 않으면 나 자신에게도 동료에게도 활동에 자신감이 될 수 없었다. 장애여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도전하려면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1년부터는 숨센터에서 소장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공감의 비/장애여성 선배들을 보고 리더십을 배워왔다. 그러나 장애여성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지 내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이 역할에 동료들이 함께하지 않을 때 리더십은 흔들리기도 한다. 나 또한 모든 실무를 다 잘하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거침없다고 평가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소장으로서 내 의견을 가지기 위해선 실무를 파악하고 정보를 찾고 판단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실무를 왜 모르는지 질문하는 동료의 눈치를 보거나 실무를 잘하는 동료와 비교하는 것은 내 문제라고 여겼다. ‘다운리더’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맞추려 하는 것이다. 나도 겪고 있는 이 인식은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이하 II운동) 현장에서 장애여성 리더가 역할을 못 하거나 무능해서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II운동을 해 오면서 결국 어느 정도의 실무를 할 수 있는 장애인만 살아남

는 현장의 문제를 보면서도, 어떤 모습을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틀을 놓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에게 대표되는 리더십이 사회에서 말하는 비장애남성의 모습 이라면 장애여성을 평가하는 문화에서 역할을 해 나가는 어렵다. 장애여성 리더가 변화하고 관계와 역할이 새롭게 변화해 갈 때 우리가 지향하는 리더십을 같이 그려가야 한다. 그렇게 계속 흔들리고 부딪히며 깨지는 과정에서 가야 하는 이유다.

장판, 왜 흔들려야 할까?

“이런 자리가 너무 필요해요”

올해 장애여성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함께 변화를 만들고자 ‘장판(장애인 운동판), 흔들자’를 진행했다. 서울, 대구, 부산에서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애여성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내가 있는 공감의 현장이 왜 중요한지 더욱 깨달았다. 장애여성이 하고 싶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동료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공간의 의미. 그래서 굳건한 원칙으로 현장을 만들기를 원하는 장애여성 동료들을 보면서 활동에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동시에 장애여성운동의 리더로서 함께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를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공감의 동료들은 역할에 대한 부담을 나누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해 가고자 노력한다. 그러려면 불안과 솔직한 감정을 말하고 장애여성운동의 기초와 원칙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말하기를 제안한다. 하지만 실수를 경험으로 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논의를 개인의 평가로 받아들일 때, 논의를 함께하는 동료로서 관계 맺기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소장으로서 내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싶고 어떤 역할을 해 나갈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면 리더로서 동료에게 현장에서 함께하는 의미를 나누기도 어렵다. 리더십은 권한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거나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장으로서 내가 가진 권한을 명확히 인식하고 나 또한 불평등한 구조에서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다는 긴장이 필요하다. 차별은 교차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역할에 관한 부담감이거나, 장애만을 이유로 설명할 때 리더로서 동료들을 조직하고 관계를 만들어 내야 하는 스스로의 과제를 발견하지 못하기도 한다. 내가 어떤 리더십에 역할을 해 나갈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면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동료가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관계의 시간을 쪼개어 쌓아가지 않고 불안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내놓지 않을 때 리더십을 함께 고민할 수 없다. 동료가 되려면 장애만이 아닌 성별, 나이, 직급 등에 따른 차이를 감각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차별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정해야 한다. 교차적인 차별에 대한 것이 우리가 가진 역압의 근본을 찾아가는 면에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내가 가진 어려움과 부담을 논의의 주제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숨기고 침묵할 때 장애여성이 경험해 온 차별과 관계의 불평등성은 위축이나 머뭇거림의 감정으로 동료들에게 표현되어 동료들을 눈치보게 만들고 상호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게 만든다.

IL운동을 부정하고 위축시키는 외부의 억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투쟁이 어려울수록 우리 현장을 다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장애여성들이 탈시설을 결단하고 운동을 결의해 온 역사와 힘을 동력으로 동료들과 젠더적 관점으로 IL운동 현장의 다시 돌아보는 것을 제안해 본다. 법·제도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일상의 돌봄 관계들이 변화해야 가능하다. 현장에는 이미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함께하고 있다. IL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운동을 지켜 온 만큼 운동의 방향과 역할을 의심받지 않고 싸우는 언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논의를 함께해 나가기를 제안한다.

장애여성 활동가의 정체성, 당사자주의를 경계한다

2000년대 초, IL운동은 장애인이 집과 시설에 갇힌 채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며 장애를 차별하는 비장애중심의 사회환경을 변화시키는 투쟁을 해왔다. 장애여성운동은 IL운동의 가치와 이념에 따라 한국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장애남성 중심의 문화를 비판하면서 성인지 관점에서 IL운동을 하고자 숨센터를 개소하였다. 그러나 숨센터는 개소 당시부터 장애여성IL운동은 ‘전장애영역 포괄1’)의 이념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했다. 장애여성만을 지원하는 것은 장애남성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것으로 역차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모든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장애 안에서도 장애 정도, 성별, 나이, 사회적 환경 등에 따라 복합적인 차별경험이 발생한다.

“여성, 장애인, 장애여성, 소수자 등 우리의 정체성에 기반한 운동은 중요하지만, 사회적 정의와 범주, 생물학적 정체성이 정치적 입장의 동일함을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와 만나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이질적인 존재들의 마주침과 뒤섞임, 흔들림 속에서 끝없는 질문과 토론이 공감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중심을 향하기보다 사회의 주변부에서 차이를 이해하고 발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각자의 경험에서 서로의 삶과 운동을 배우고, 사회적 차별을 해석하는 힘을 익혔다. 반복되는 사회의 거절과 친구의 죽음, 지켜지지 않는 국가의 약속과 폭력 속에서 역설적으로 공감하는 힘과 맞서 싸우는 연대를 터득했다.”2)

한 개인은 단 하나의 정체성으로만 구성될 수 없으며 다양한 삶의 맥락을 ‘장애’의 문제로만 해석될 수 없다. IL운동에서 “우리를 배제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구호는 여전히 강력한만큼 당사자주의는 ‘자신의 특권화에 매몰되지 않도록 긴장과 경계를 놓지 않아야 한다. 당사자를 주체화하면서도, 장애, 젠더, 섹슈얼리티, 이주, 나

1) ‘모든 장애유형을 포괄하여 공통적 지원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인위적이고 관료적인 파편화를 막고자 자립생활운동의 원칙으로 선언함을 명시하고 있다.’, 「자립생활서비스 모델」, 출처: CRM 연구물(1988년), 정립회관(초판 2002년)

2) 장애여성공감,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 20주년 기념 선언문. 2018년

이, 계급, 학력 등의 차이에 따른 차별의 문제를 함께 제기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여야 한다. 당사자성은 생물학적인 당사자만이 아닌 억압과 차별이 교차하는 경험³⁾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운동의 방향이다.

장애여성은 장판을 흔들 수 있을까?

장애여성운동은 탈시설 운동에서 시설화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시설화는 “지배권력에 의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관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와의 분리, 권리와 자원을 차단함으로써 ‘무능화/무력화’ 된 존재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제한하여 주체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며, 탈시설은 시설화를 유지시키는 지배권력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항하며, 상실되었던 삶에 대한 주체성과 권리를 되찾고 나아가 시설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정상성 중심의 사회에 균열을 내는 것⁴⁾이다.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자립정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비용 대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예산 효율성에 따라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⁵⁾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실태조사는 탈시설 이후 지역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사유를 주되게 질문하면서 탈시설 정책을 후퇴시키는 명분으로 삼는 근거자료로써 활용된다. 이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전환을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 신청 과정에서 ‘본인 의사 확인 효과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한다. 결국 탈시설 예산을 거주시설을 개인 공간으로 전환하는 기능보강사업에 투여하며 탈시설 지원 역할을 시설이 가져가는 것이다.

시설수용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해관계를 실현하고 있는 구조에서 제한된 공간과 통제되어 온 관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탈시설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는 시설과 일반가정을 구분하여, 시설이 가족의 역할을 대리하며 국가와 시설은 시설정상성을 유지한다. 실제로 시설 퇴소 시 당사자의 의사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된 조항이 있으나 ‘의사능력’을 판단하여 타인이 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예외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결국 ‘보호자’인 가족 혹은 가족의 권한을 행사하는 시설, 장애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규정하는 국가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는 것이다. 시설을 나와 지원주택으로 탈시설하더라도 가족과 시설의 관계가 끊임없이 일상을 침범하는 영향력으로 이어질 때, 시설화될 수밖에 없다. 혈연 가족중심의 기존 복지체계 안에서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없는 대상으로 여겨지며, 탈시설 대상으로조차 포함되지 않는다. 시설수용정책으로 권리를 폐지하면서 국가와 시설이 공모하여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정책은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지 않

3) 장애여성공감 15주년 기획도서 ‘15년 동안의 사고’, 2013년

4) 조미경, ‘탈시설 운동의 확장을 위한 진지로서의 II센터’, II과 젠더포럼, 2018년

5)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과 시설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장애인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2023. 7. 20

는다. 제한된 공간과 통제된 관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탈시설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숨센터는 2016년부터 거주시설연계사업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당사자와 만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신아재활원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긴급분산 조치, 긴급탈시설 이행 투쟁 후, 2022년 재연계 시점에 서울시와 신아재활원은 숨센터와의 연계를 거부했다. 2022년부터는 김포에 위치한 프리웰 재단의 해맑은마음터와 활동하면서 지체·발달 중복장애가 있고 구어 소통이 어려운 장애여성·남성을 주로 만나고 있다. 시설과 다르게 움직이는 몸의 경험, 시간을 만드는 것이 활동의 목표였는데, 기존에 활동했던 방식을 다르게 만들어야 했다. 중증장애여성인 내가 활동에 참여할 때 신변보조가 전반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활동을 같이하는 과정에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내려가서 식사하거나 활동을 진행할 경우,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함께 보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막상 활동할 때, 같이 바닥에 내려가야 하고, 앉아서 이동이 어려운 내가 필요한 세팅과 역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민을 거쳐 동료와 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무엇보다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해졌다. 나는 평생을 시설에서 살아온 중증장애여성이 독립하여 살아갈 때, 활동지원을 요청하고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싶었다. 장애여성이 어느 장소에서 불편한 사람이 될 때 차별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함께 느끼고 싶었다.

올해 활동을 계획하면서 공간과 활동지원에 완벽한 세팅에 집중했지만, 정작 장애여성들과 함께하고 싶은 활동을 질문할 때 구체적이지 못했다. 장애여성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감정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등 필요를 일방향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은 활동가의 역할을 지원자의 위치로 한정하게 된다. 이는 장애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조심스럽거나, '잘 알고 있다'는 친절한 지원자 혹은 통제에 가까우며 이럴 때 장애여성은 대상화될 수 있다. 구어 소통이 어렵고 활동지원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몸들은 돌봄의 대상이란 통념에서, 중증장애여성 활동가 참여하기 위한 물리적 접근성을 만드는 것은 서로 돌보기 위한 연습을 찾아가는 것이다. 완벽한 세팅을 요구하거나 활동지원의 역할만에 집중하거나 관찰하는 태도는 장애여성을 대상화할 수 있다. 여러 사람에게 집중받으며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닌, 서툴러도 같이하는 활동이 왜 필요한지, 활동지원사와의 관계를 존중한다는 건 무엇인지, 대상화하지 않는 활동은 무엇인지 시도해 가는 중이다. 그 시도 속에서 장애여성이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편한 장소, 편한 관계는 누구의 기준인지, 익숙한 활동의 방식을 달리 바꾸고 당연해서 질문하지 않았던 원칙을 다시 나누는 게 왜 중요한지 깨닫고 있다.

탈시설 이후 일상이 변화한다는 감각은 장애인이 매일 몸을 보이고 드러내는 관계에서

사생활, 성적권리가 통제되지 않는 관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재생산 모델은 기존 가족 중심의 가족 질서 ‘안’에서 생존과 소속감을 가지고 돌봄을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연대의 확장을 통해서 기존 가족 너머에서 돌봄과 상호의존을 확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⁶⁾라는 말처럼 II운동과 가족구성권운동이 떨어질 수 없으며 장애인 당사자가 II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모든 사람이 돌봄이 필요하지만, 장애인은 일상 전반에서 돌봄이 필요하다. 돌봄 서비스의 질이 아니라 결국 누가 돌보아야 하느냐는 문제이다. II운동은 노동할 수 있는 환경, 노동권을 주장하기 위해 아니라 ‘돌봄’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논의하고 제기해 나가야 한다. ‘권리 내용은 특정 재화와 서비스가 아니라 돌봄 관계다. 의무와 책임은 인과관계를 따진 법적 책임을 넘어서 돌봄의 가치와 윤리를 지탱하는 사회문화적, 정치적 책임을 포함한다. 한쪽이 더 많이 기댈 수밖에 없는 비대칭적 관계를 부러 ‘동등’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의존의 불가피성이라는 근원적 평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⁷⁾. 허락을 구하는 일방적인 관계를 중단할 수 없고 취약함과 피해경험으로만 소통할 수 있는 관계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없다. 관계 안에서 시설화되지 않는 삶, 실패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기다리는 것⁸⁾에서 시작되며, 누가 책임지고 돌볼 것인가와 연결된다. 지금 II운동 현장은 어떤가. 제도화된 현장에서 외부의 압박을 견디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운동을 지속해가기 위해서는 젠더적 관점으로 돌봄 관계에서 시설화되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운동의 원칙으로 용기 있게 조직하는 장애여성 활동가

“독립된 리더로 활동한 적이 없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너무 어렵다.”

“II센터는 활동지원사와 근로지원인, 활동가들도 계속 조직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다른 사람을 조직하려면 나부터 조직해야한다. 내가 활동을 왜 해야 하는지 하루에 4시간씩 출퇴근을 하고 사람은 만나 무슨 얘길 해야하나 계속 생각해야 한다.”

“(모든 일을 확인할 때) 소장이라도 모른다는 걸 일정하는 것도 용기다. 이 사람도 모를 수 있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고 알려고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운동의 방향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장애여성리더는 ‘설득’과 ‘밀어부침’의 기초를 명확히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종 권한은 소장에게 있지만 활동가는 진행자의 역할로 그치

6) 김순남, ‘기존 ‘가족’ 너머에서 사회적 연대의 장을 모색하는 귀어가족정치’,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자료집, 2023. 09. 23

7) 김영옥·류은숙, 『돌봄과 인권』, 코난북스, 2022, 『돌봄과 인권』

8) 이진희, ‘불구의 몸들이 서로 돌보는 정치’, 문화/과학 2023 가을 통권 115호 장애와 역량

지 않는다. 같이 하는 활동가에게도 이 몫을 끊임없이 나누는 것이 소장의 역할이다.”

장애여성이 ‘독립/탈시설을 하면서 ‘나의 권리를 알고 싸워왔던 동료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장애여성을 만나 독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자, 집에 고립되어 있고 싶지 않아서, 현장을 떠나보니 탁상공론을 하는 사람 같이 느껴져서’ 등의 이유로 II운동을 하고 있다. 독립/탈시설 직후 활동을 바로 시작하여 10년 이상의 연차가 쌓이고 조직 내에서 리더가 된다. 운동의 방향을 제시할 때 장애여성으로서 감각해온 차별과 존중에 대한 감수성이 중요하게 인정되어야 하지만, 장애여성의 몸의 경험이 역할과 권한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장애여성 리더는 운동의 원칙과 방향을 제안하기 어렵다. II운동에서 사업이나 운동이나 라는 논쟁은 장애 당사자들이 활동하는 현장에서 더 많은 실무를 요구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비/장애, 여/남성 활동가 간의 역할과 업무 위계와도 맞물린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실태와 자립생활 운동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활동가의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나는 활동가이기보다 직원이다’의 응답비율이 전체의 27%를 차지했으며 ‘활동가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야한다’는 응답에는 57%가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활동가가 뭐하는 역할인지 잘 모르겠다.’거나 ‘직원 관계로만 있고 싶다’는 응답도 20%의 낮지 않은 비율일 때 센터의 집회 조직과 지하철 행동에 대한 인식과 연결된다. 동의하지만 너무 자주하거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다.⁹⁾

그러나 장애여성이 이를 낙담하지 않고 역할과 리더십은 ‘원칙’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착한 장애인’에 이어 ‘착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닌 장애여성 리더가 자기 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활동가로서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지’ 끊임없이 말하고 갱신하는 것이자 함께할 동료를 조직하는 일이다. 나는 모르는 것을 창피해하고 말하지 않을 때 사람을 조직하고, 실패하는 관계에서 배우고 변화해야하는 타이밍을 놓친다. 활동가가 장애, 젠더 감수성을 몸에 장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을 때 차별과 폭력이 발생했고 안전함을 자부해온 공간은 흔들렸다. 내가 장애여성활동가로서 보고 느낀 관점을 정확히 말하지 않을 때 그냥 지나쳐온 시간의 책임을 가진다. 그래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성찰을 가져가되 나의 욕망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만들어 내고 싶다. 나의 몸의 경험이 우리가 만날 사람들과의 공동작업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 믿으며 조직적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정체성을 교차하는 동료

9) 김기룡, 허유진, 박경석, 정다운, 백인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실태 및 자립생활 운동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0주년 기념, 2023년

“장애여성으로의 정체성을 우리는 생각해본 적이 있나?”

“(장애여성이 리더로 활동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운동에 다양한 모습이 많이 없어서 일 수 있겠다. 여성 리더들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나도 저 여성처럼 한번 활동해보고 싶다고 생각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일까 돌아보게 된다.”

“비/장애여성 안에서도 각자 삶의 경험이 다르다. 차이를 얘기하고 함께 토론해왔을까?”

“양육을 해야하는 여성활동가가 많다. 돌봄은 여성만의 사안이 아닌데 아이 양육, 돌봄은 여성의 책임으로 이야기한다.”

장애여성이 II운동을 하면서 장애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차별에 대해 함께 모이고 정체성을 고민할 기회가 없다고 한다. 일생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은 너무 큰 반면 여성으로서 받은 차별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하지만 조직 안에서 여성활동가들이 양육과 돌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차별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는 비/장애여성활동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의제가 되었다. 장애여성운동은 차별을 드러내고 나의 경험만을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경계한다.

그래서 일방적인 돌봄, 관계를 맺지 않기 위해 “몸을 부대끼며 지나왔던 시간들은 상호 돌봄, 우리가 어떤 감각을 서로 익혀야 하는가를 직면하게 했다. 연결되는 몸과 경험 속에서 연대하는 동료들 찾고 조직하고 부대끼며 다른 몸을 마주하는 것, 삶의 경험을 나누는 이 감각들은 서로에게 지지가 되고 운동의 기반¹⁰⁾이 된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말 중에서 취약함만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궁금해하고, 관계맺고 싶은가. 돌봄이 당위적인 말이 아니려면 나 역시 돌봄을 받는 것에 익숙해진 몸을 달리하면서 서로가 이 몫을 나누고 책임을 함께 져나가야 한다. 관계 맺고 싶다는 욕구는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의지이기에 계속 실패하더라도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¹¹⁾

토론이 가능한 의사결정구조, 책임을 나누는 체계

“토론이나 논의보다는 주입식으로 의견을 받아들이고 따라해왔다. 이 의견에 반하면 내가 불순분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무조건 지지하기보다는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게 느껴진다.”

10) 유진아, ‘몸의 연대기’, 장애여성공감 2022 통권 25호 <마침>

11) 이진희, ‘불구의 몸들이 서로 돌보는 정치’, 문화/과학 2023 가을 통권 115호 장애와 역량

“(애기할) 회의가 없어요. 보고만 형식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견 내기는 하는데 반영은 안 되고 나 혼자 떠드는 느낌. 그러다 보니 힘이 빠지거든요. 목소리를 내도 받아들여질까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중심을 잡고 동료들과 같이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데 점점 손발을 맞추기가 어렵다. 몸이 좋았을 때는 하루종일 토론을 했다. 예전에는 규모가 작았으니까 가능했는데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그것도 안 되는 거 같다.”

II운동에서도 남성이 중심이 되어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II센터 내에서도 성별과 언어장애 유무, 상근과 비상근 형태에 따라 권력관계가 생기며 장애여성의 경험과 의제들을 말할 때 주목하는 반응이 다르기도 하다. 장애여성이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로서 회의에 참여할 때 다른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 나도 나이와 경험의 차이가 큰 장애남성 소장님들과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어렵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선배-후배와의 관계로 오랜기간 활동을 해 왔고 장애여성이 이 관계를 어떻게 다시 맺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실제로 역할과 권한에 따라 어떤 리더십과 발언이 논의의 주도권을 가지는지. 왜 사람을 챙기는 것은 장애여성 리더의 몫이고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해본다. 현장에서 장애여성이 정치적으로 등장하는 의미를 함께 인식할 때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를 조직할 수 있는 논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주저하거나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말하고 반영할 수 있으려면, 함께 책임지고 위해서 무엇을 놓쳤는지, 어떤 관점과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운동은 안팎으로 계속 어렵고 책임의 무게가 들지만 그래서 더욱 위축되지 않고 동료와 중심을 함께 잡아가기 위한 제안들을 고민하면서 합을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서로 의존하며 조직하는 운동

“장애인을 만나는 게 어려워졌다. 실무를 해야 하니까 센터가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전엔 센터가 운동이었는데 어느새 사라지고 사업이나 운동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장애여성만으로 모이기는 힘들다. 단순히 프로그램 진행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드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수급비가 크다. 장애가 심해질 거고 병원도 가야 하는데 수급을 포기할만큼 상근활동을 하는 게 나올까, 솔직히 고민된다.

“자조모임은 지역에 있는 장애여성을 만나는 마지막 고리다. 이 사람들이 자조모임으로도 센터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고립될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이야기할 공간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모임을 나갔을 때) 다시 만나기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만나는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만나자가 목표일 때 활동을 제안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시설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익숙해지는 습관들이 있다. 그게 눈에 다 보인다. 그럴 때 말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장애여성들이 모이면 연애 얘기를 많이 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활동이 위축되는 II현장에서 안 그래도 만나기 어려웠던 장애여성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장애여성 자조모임도 지역에서 사라지거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개인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면 혼자서 고립되지 않을까, 관계가 끊어질까봐 걱정하면서도 각자 다른 욕구를 가진 구성원들과 어떻게 모임을 이끌어야 할지 원칙을 세우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도 자조모임을 망해봐서 알지만 모임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모이지 않거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장애여성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나아가 우리 활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상근활동이나, 모임, 활동 전반에 걸쳐서 어떤 활동을 구성할 것인가. 투쟁에 나갈 것인가 나들이를 갈 것인가,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때 장애여성들이 탈시설 이후의 삶을 바꿔가기 위해 동료의 모습을 함께 모니터링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일례로 동료의 역할로서 ‘(활동지원사와) 지원사의 생각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때가 있는데 그때 시설병 도지네. 라는 말을 해줘야 한다.’는 말을 중요하게 기억한다. 그래서 동시에 *“장애여성들이 모이면 연애 얘기 너무 필요하다. 당장 동료상담에서 만나는 장애남성은 성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 장애여성이 활동지원사뿐만 아니라 연애, 섹스 등 관계를 맺을 때 동료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을 함께 이야기하고 변화할 방법들을 같이 찾아나가는 것이 정말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그 문제를 겪지 않고 싶은 마음이 크고 갈등을 전제하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시설에서 복지관에서 장애여성을 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돌보고 변화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권리예산이 폐지되고 그 어느 때보다 투쟁이 가열차게 필요한 시기이다. 매일 아침 출근선전전에 나가지 못하는 것에 무거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 현장에서부터 하나씩 변화할 수 있는 일들을 매일 같이 해나가는 것이 장애여성운동의 중요한 활동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이후의 활동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고민들

수키(전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담당 활동가)

수키의 탈시설 과정

시설에서 고등학교, 전공과를 졸업하고, 행정복지 일자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직장인 특수학교에 도서관 사서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식을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시설 허락을 받아만 됐습니다. 허락을 받아도 술을 당연히 안 되고 밤 10시까지 무조건 시설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탈시설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장애아동수용시설이지만 나는 22살이고 돈도 버는데, 왜 나는 외출 하나하나 보고하고 감시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의문을 가지던 중, 저로서 큰 일탈을 저질렀습니다. 퇴근하고 시설에 말 없이 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 넘어 시설로 복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담당 방 시설종사자가 퇴근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때 제가 어쨌든 시설 규칙을 어겼으니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학교가 방학이 시작되어 출근을 안 해도 될 때였고,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독방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면서도 화가 났고, 당장 탈시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온갖 방법을 다 생각했습니다. 마침 내가 폰이 있었고, 그걸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한 밤 중에 몰래 폰은 켜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A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에게 문자로 연락했습니다. “소장님 여기서 꺼내주세요.”라고 그리고 바로 “알겠다.”는 답이 왔는데, 그마저 시설종사자에게 들켰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마 내가 너무 문제를 저질러 차라리 내보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거 같았고, 한 달 동안 탈시설 준비 과정을 갖고 2013년 11월 11일 탈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차별, 성폭력에 맞서서 싸워온 경험

저는 2013년 11월 11일에 탈시설 이후, 2014년 4월부터 II운동과 함께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부산장차연)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그해 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투쟁단(이하 420부산공투단)에서 50일 동안 노숙투쟁을 하면서 부산장차연 일도 함께 배우면서 저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420부산공투단 연대체 중 당시 한 활동가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가해자는 1년 6개월

에 징역을 받았습니다. 징역이 끝난 후 가해자가 다시 활동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제가 부산장차연에 “아직 가해자가 있는 단체가 부산장차연에 같이 활동하는 것은 힘들다.”고 하니 가해자가 감옥 갔다 오면, 문제가 끝났다는 식으로 정리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부산장차연 동지로부터 수많은 2차 가해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부산장차연 조직 내 가부장적, 성차별적 구조를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9년 420부산공투단 농성장에서 저는 성폭력을 경험했지만, 사건화하기 싫었습니다. 조직 내부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할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9년 사건이 공론화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2차가해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 가해자의 셀프고발로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직접 가해자를 고소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성평등위에 원가해자 및 2차가해자의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 성폭력, 성차별을 맞서 싸우는 이유는.

2021년, 11월쯤 정식으로 전장연 성평등위에 원가해자들과 2차가해자들의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생각과 전장연 성평등위가 생각하는 조사 및 징계과정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부산장차연 조직 내 성폭력 사건 2차 가해자들을 징계하고,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전장연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전장연과 부산장차연은 저에겐 소중한 곳이었어요. 제가 또 언제 다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쌓아온 활동과 투쟁들이 그 누구보다 대단하고 치열했기 때문에 지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꼭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쯤까지는 전장연 정관상 성평등 교육이 의무였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성평등교육이 의무화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함께 해온 과정에서 2023년 전장연 중앙운영위원 성평등교육이 다시 의무화가 되고, 2023년 전장연 중앙운영위 성평등 교육을 할 때 직접 제가 가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저에게 그 교육 현장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뭐가 됐든 나로 인해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게 보이니까 계속 싸울 힘이 생겼습니다.

‘지지가 필요하다’는 말이 중요한 만큼 동료와의 관계에서 나/동료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까?

“지지”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어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 내부

특정상 부산장차연은 대표, 집행위원장 외에 집행부는 저 혼자 1인 사무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활동하면서 고민이 생겨도 누군가와 이야기할 동료가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장애여성 동료는 더구나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기도 했습니다. 고민과 걱정들이 생기면 저 혼자 생각하다 말거나, 업무가 많으니 어느 순간 그런 고민들이 없어지고 일에만 몰두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실 부산장차연 성폭력 사건이 터지고 단체를 나오게 되면서 “다시는 죽어도 장애인판은 안 가야지.”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0월 장애여성공감에 했던 “장애여성이 판을 흔들자!” 워크숍을 갔다 오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산, 대구, 서울의 장애여성, 비장애여성 활동가들이 3일 내내 이야기하였는데, 어쩔 똑같은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 게 많은지. 그리고 워크숍 하는 내내 서로 지지하고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런 분위기가 저한테 처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전에도 이런 자리들이 있었더라면 지금의 제가 아직도 부산장차연에 잘 활동하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지, 존중,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곤 합니다.

비장애인의 속도, 완벽함을 추구하거나 역할 나눔 등을 하지 못한 순간. 장애여성 활동가의 역할이 사라지는 구조.

8년 동안 주 업무는 부산장차연 일을 하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I) 업무도 했습니다. 부산장차연에서도, II센터에서도 장애여성 활동가를 찾아볼 수 없었고, 같이 나눌 동료도 딱히 없었습니다. 장차연 대표들이나 소장들의 “너는 당연히 해야 되는 활동이야.”라는 말이 저에게 부담과 어떻게든 이 조직을 이끌어 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더 완벽하게 비장애인의 속도 맞추어 일을 하다보니, 순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활동이 뭔지, 나의 정체성도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장애여성 활동가들이 수 있는 역할이 많은데 그렇지 못한 구조에 점점 장애여성 목소리들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탈시설 이후 장애인 인권운동을 시작하고 제기한 과정 그리고 현장의 의미

부산장차연 성차별, 성폭력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초반에는 조직에서 저한테 “왜 가만히 있는 전장연에 똥물을 씌우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생각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 전장연에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알고, 저 혼자 아닌 전장연이 같이 해결하려 바뀌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게 “어떨 때는 진짜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조직에 진심이 아니고, 애정이 없었다면 그냥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너무 대단하고 아까우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제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도 저처럼 했을 겁니다. 단지 말할 용기를 생길 때까지 시간이 걸릴 뿐. 못하더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동료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제가 우리가 같이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여성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임은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

나의 자립

저는 특수학교를 12년 다니고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나니 집에만 있었어요. 가끔 부모님과 외출은 했지만, 만족은 못 했어요. 저는 대학도 가고 싶었고 직장생활도 하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자유롭게 친구들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불가능했죠. 데리고 나가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집에서 지내다 보니 가끔 우울함에 빠지곤 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자료를 보내주더라고요, 그건 IL운동이었어요. 자료 다 읽고 그때부터 친구를 따라 다릿돌장애인IL센터 갔어요. 어렵게 조금씩 다니다 보니 자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자립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부모님은 절대 자립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장애도 장애지만 여자라서 안 된다고 남자 같으면 자립해도 되지만 여자는 성폭력 위험도 있고 생리 때는 어떻게 하나며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거든요. 저는 그때 장애보다 여자로 태어난 것이 더 싫었어요. 장애여성으로 자립하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럼 활동 지원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부모님을 6개월 동안 설득한 끝에 활동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활동 지원사님이 오시니 조금 자유로워졌죠. 근데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부모님을 계속 설득했죠. 부모님도 저의 고집에 지치셨는지 9년 만에 저의 자립을 허락하셨어요. 그때 대구에 여성 체험홈이 사람장애인IL센터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사람장애인IL센터 체험홈에 입주하고, 활동했죠. 근데 학교 다닌 것 말고는 사회생활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체험홈 생활이 즐거우면서도 어려웠고 힘들었죠. 나랑 다른 경험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제일 어려웠죠. 그때는 체험홈에 3~4명씩 있을 때였어요.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서로를 이해 못 하고 싸웠어요. 시설에서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 대장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죠.

시설은 무서운 곳이거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수급권자가 아니어서 일을 해야 했어요. 자립 전부터 동료상담에 관심이 있어서 동료상담가로 활동하고 싶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그때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여러 활동을 했는데요. 저녁에는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교도 다녔어요. 저의 속도로 8년 만에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료상담을 하면서 서울의 집단동료상담을 참여하고 교육을 들으러 다녔고 장애여성공감에서 하는 성폭력상담 교육을 받으면서 장애여성 중심으로 동료상담과 자조모임하고 있어요. 활동하면서 장애여성운동이 어려운 만큼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그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날라리 모임

날라리 모임은 날라리님들이 하고 싶었던 것, 가고 싶었던 것, 말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가고, 말하는 모임이에요. 년 초 날라리님들이 계획을 세우고 일년동안 최대한 모임 안에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논의, 센터에서 1박 2일,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 타기 등 활동했어요. 날라리 모임은 날라리처럼 활동하는 모임이에요.

원동력

제가 날라리 모임에 처음 들어간 것은 자립을 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모임을 한 두 번 하더니 모임 날짜도 정하기 어렵고, 모임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모임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1~2년이 지났어요. 다른 센터에서 장애여성 모임이 생기니까 대구사람센터 장애여성들이 모임을 하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때 카톡을 보는데 날라리 모임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 했죠. 날라리 모임을 다시 해 보자고요. 그 단톡방에는 장애여성들이 몇 명 남아 있었거든요. 모임을 잊지 않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장애여성 모으고 모임을 다시 부활 시켰죠. 날라리 모임을 기억하고 있었고, 다시 모임을 하고 싶다는 것이 동력인 것 같아요. 장애여성들이 날라리 모임을 잊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조직의 중요성

날라리 모임을 진행하면서 장애여성이 말할 곳은 어디, 갈 곳은 어디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많은 이야기들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이야기와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것도 있고요. 시설이나 가족에게 느끼기 어려웠던 존재감, 역할이 날라리엔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괜찮은 곳이죠. 그리고 날라리님들은 각자 개성이 강해요. 그 개성을 인정해 주고 받아줄 수 있는 곳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항상 개성을 무시당하거나 억누르고 살아왔으니까 그 개성을 찾고 발산할 수 있는 곳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날라리님들은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르르 달려가 번개같이 도움을 주곤 하죠. 한 사람이라도 고립되는 꼴을 못 보고 차별받는 꼴을 못 보죠. 저는 날라리님들을 보면 아주 든든하죠.

리더의 원칙

동료상담가나 모임 리더를 하다보면 샌드위치가 될 때가 있어요(웃음). 그럴 때 참 곤란하죠. 센터와 날라리님들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센터에서는 모임을 할 때 책을 읽고 토론하라거나, 집회에 참여하라거나 할 때 날라리님들이 하기 싫어 하거나 안 하려고 하죠. 날라리 모임은 날라리처럼(?) 모임을 하길 원하죠. 그런데 집회나

센터 행사가 있을 때 센터에서는 날라리의 참여를 원하는데요. 날라리님들은 모임만 하고 싶어하고, 특히 집회 참여는 하고 싶지 않아 하죠. 조율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오~ 리더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 나름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하네요. 저는 동료나 날라리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저의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모임은 모임원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임을 그만두거나 활동을 그만두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모임이라도 나오면 얼굴이라고 보고 소식이라도 알잖아요. 저는 날라리님들이 말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죠. 이것이 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집회나 행사는 날라리님들께 물어보고, 하고 싶은 사람만 참여하거나 저 혼자 참여를 하죠. 센터에서는 강요하지 않고 날라리님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활동도 했으면 좋겠어요.

리더의 고민

리더로서의 고민이 많죠. 장애여성들은 가족이나 시설에서 '보호' 받으며 지내와서 폭력이 무엇인지, 차별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폭력을 당하고 있어도 차별을 받고 있어도 잘 모르고 지내죠. 자립을 해서도 이어지죠. 사회에서 활동지원사 혹은 남자친구에게 일어나는 폭력과 차별을 장애여성들에게 인식을 시킨다는 것을 무진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폭력을 폭력이라 차별을 차별이라고 알아야 저항을 할 수 있는데 참 답답하죠. 장애여성에게 많은 관계를 갖고, 경험을 해서 인식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는데 어렵네요. 또 하나의 고민은 여러 모임을 하다 보면 신기한 점이 있어요. 재가 장애인은 재가 장애인끼리, 시설 장애인은 시설 장애인끼리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왜 섞이지 않지 정말 섞이지 못하는 것 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날라리 모임만 해도 7명인데 다 재가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모임 안에도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재는 이러하니까 우리 모임에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리더로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눈물). 이런 고민은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저도 일정이 많고 상근자분들도 업무가 많다 보니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고, 이야기해도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모임 안에 해결하도록 하고 리더가 그 모임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할 때 공감과 지지를 받을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담당자에게만 보고하는 식이 아니라 제가 편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상근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가끔씩 했는데 요즘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시설병

시설이나 재가나 그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 엄청나다고 봐요. 20년에서 많게는 60년... 시설에서 살아가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시설 병이 사라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

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는 할 때마다 그럼 이걸 누구에게 보상을 받나,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상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화남). 천천히 나와요. 무엇이든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동료나 센터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경험을 듣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센터나 장애여성 동료상담가를 찾아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시설병이라는 단어가 낯설고 불편하네요. 시설병이라는 말을 요근래 처음 들었어요. 왜 저런 단어를 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장애인도 지역사회에 살면서 자기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독립적이지 못하거나 대인관계가 안 되거나 선택과 책임을 모르는 비장애인도 많은데 그런 비장애인들에게는 시설병, 집병이라고 안 붙이잖아요. 왜 근데 장애인들에게 이 말을 붙인다는 것이 듣기가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 사회가 시설을 만들어 수용하고, 병들게 해놓고 시설병이니 하는 건 듣기가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시설병에 벗어나면 삶이 조금 나아지겠지만 꼭 벗어나야 할까요. 벗어나려고 하다가 못 벗어나면 더 자기 신뢰 회복이 안 되고 다시 시설로 가고 싶지 않을까요. 벗어나고 싶다면 자기의 속도에 맞추어서 하는 것 좋고 불편함이 없다면 벗어나지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립을 선택했듯이 이 또한 자신의 선택이 아닐까요.

탈시설

탈시설라는 말이 이제 익숙하네요. 근데 탈시설 하신 장애여성을 만나다 보면 탈시설이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립, 선택하고 책임지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선택을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책임질 수 없었던 삶, 탈시설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익숙해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지 어딜 갈지 활동지원사에 어떻게 지원요청을 해야 될지 익숙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먹자는 대로, 가자는 대로 주체성 없이 탈시설은 했지만 자립 안에 시설이 되고 마는 것 같아요. 누구와도 교류 없이 지하상가를 떠돌아 다녔던가, 활동지원사에 선택으로 끌려다닌다거나, 고립되면 시설이랑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선택과 책임을 반복하면서 주체성으로 자립을 하게끔 동료지원이나 장애여성 자조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장애여성이 고립 되지 않게 또 다른 시설이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모임의 도전과 결과

날라리 모임을 부활시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워낙 장애여성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모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모임에서 무엇을 정할 때 날라리님들에게 묻고, 또 묻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해서 묻고 결정했어요. 날라리님들이 전화가 오면 고민 상담도 해주고 했어요. 제일 어려웠던 것은

전동휠체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찾은 것이었어요. 사람센터가 자조모임과 행사 진행이 많고 올해는 날라리님들이 평일에 일을 하다 보니 모임을 주말에 진행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장소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센터에서 모임 지원금을 받아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요. 나름 페이스북에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올해 날라리님들이 5명이었는데요. 2명이 더 들어와서 7명이 되었어요(뿌듯). 올해는 7명을 최대 인원으로 정해서 7명으로 모임 활동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많은 인원을 받아볼까 계획 중이에요. 그리고 월 1회에서 2회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더 많은 경험(여행, 다른 장애여성 모임과 교류) 할 수 있게 해볼 계획이에요.

소감과 계획

10월에 장판 흔들자 워크숍에 참여를 하면 이렇게 편하고 공감과 힘 얻게 해준 워크숍은 처음었어요. 대구사람센터 장애여성 활동가들을 초대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정말 하고 싶었던 장애여성운동을 대구에서 해볼까 해요. 날라리님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장애여성을 모아 더 큰 모임을 만드려고 해요. 보수적인 대구에서 신나게 활동할 계획이에요.

거듭나기, 운동하기, 조직-화, 리더링, 함께 살아가기라는 과제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역사와 명성을 자랑하는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II과 젠더포럼>에 토론으로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목이 '젠더적 관점으로 II판을 흔들자' 인데, 제가 소화한 부제는 '장애여성운동가로 거듭나기, 조직하기, 함께 살아가기'입니다. 저 역시 여성주의 운동판에서 새로운 삶을 만나고, 조직-화 안에서 배우고 한계에 부딪히고, 반성 폭력이라는 의제로 세상의 주변부에서 언어를 만들어가고, 제도를 만들고 또 갇히며, 우리들이 무엇이 되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하는 요즘이기에 밀출치고 배우면서 발제 읽었습니다. 저도 보태며 공명하고, 의지해서 같이 나아가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개조식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줄글로 씁니다.

나를 거듭나게 한 그곳

저에게 제안해주신 토론거리는 '젠더 관점의 필요성,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는 운동의 중요성'이었어요.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제 출발점은 '여성주의 운동판'이었습니다. 여성주의자들의 게더링-모임이 제 삶의 숯불이었습니다. 여성주의라는 세계관은 지난 역사를 다시 읽고 말하고 쓰게 합니다. 나에게 깊이 드리워져 있던 자기 비하, 여성비하, 언어화되지 못한 침묵, 무력감, 슬픔, 고적함, 이해되지 않음, 답답함, 이상함 등을 해석하고 해체하고 헤쳐나가게 해주었습니다. 주입식으로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스터디하는 방식이 아니라 '탐구'였고 자기 말하기와 이야기가 함께 나왔습니다. '경청'자들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상담이나 치료, 조언과 충고가 대기 중인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자기 기술, 서사가 다시 지어지는, 그의 오롯한 표정과 생기와 빛이 배어나오는 과정을 지켜봐주고 응원하는 이들입니다. 이야기들 각각이 가진 고유한 역사와 맥락과 행위성과 박진감을 들고 가장 속시원한 맛장구를 쳐주는 사람들. 이들과 언제,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런 모임이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을까요. 사회운동은 이런 모임을 얼마나 품어내고 있을까요?

발제자들은 자신을 거듭나게 한 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모임, 나를 가장 나답게, 편안하게, 속시원하게, 설레게 했던 모임을 만나는 기회는 탈시설, 탈치료, 탈시혜적 서비스라는 '장벽 넘기'의 정치적인 계기와 행위와 같이 오고 있습니다.

조직-화하기, 조직-화되기, 조직-화넘기

여성주의 모임-게더링 이후에 제가 만난 것은 운동과 조직입니다. 게더링과 소모임이 보다 자유로운 형태라면(날나리 모임지기의 고민이 발제 3에서 잘 느껴졌지요!) 조직화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나 모임, 자원을 모으는 행위이고, 조직은 목적과 형태를 명시화, 고정화, 상설화한 형태이지요. 저는 세 가지를 모두 해왔던 것 같고, 세 가지 모두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각각의 차이점을 느끼고, '배우는' 기회는 당연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모임은 여성주의자들의 게더링 - 그냥 모이기 -의 성격과 느낌을 여전히 가득 품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의 활동가들에게, 개개인에게 소중한 심과 우정, 즐거움, 환기의 공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화는 조직과 좀 다른데 어떤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조직-화하고 있는 현재진행형 단어 같아요. 따라서 '너 내 동료가 되라'라는 말처럼, 계속 제안하고 기다리고 응답을 듣는 '과정'이 살아있는 행위입니다. 조직화는 같이 무엇을 하자고 제안하는 상대를 계속 관찰하고, 그에 대해 고민하고, 그를 고려하고, 그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행위 자체가 따뜻한 돌봄, 애정, 관심이고 그것이 달콤하고 흔치 않아서 이 행위가 발생하는 곳이라면 우선적으로 조직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가 떠오르네요. 그런데 달리보면 이 일방향의 애정이 상대를 대상화하고 도구화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듯합니다. 여성주의자들의 조직화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돌봄의 상호성을 하나하나의 실천에 담는 것, 그 결과는 힘의 차이가 심화되는 게 아니라, 역량강화를 통한 협력관계가 되는 것, 해방된 삶의 동료가 되는 것일까요. 돌봄에 대해 이론화하고, 인권적 돌봄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가듯이, 젠더관점의 조직화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원님의 '공정 이후의 세계'에서 정치적 책임과 행동으로 확대되는 돌봄론이 다뤄지고 있어요)

조직은 목적과 형태를 명시화, 고정화, 상설화한 형태라고 제가 써 보았는데요. 저는 역사가 오래된, 한국성폭력상담소라는 기존 조직에서 상근활동가로서 구성원이 되었어요. 연구소 간사도 하고,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사무국장, 부소장, 소장이라는 '직책'을 해왔습니다. 했던 활동도 사업도 기획도 많지만, 직책을 쓴 것은 오래되고 큰 '조직'이라는 고정된 실체를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제가 많은 고민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젠더적 관점으로 의미있는 점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자율성으로 공간과 돈을 마련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쉽게 세상에서 사라질 수 없는 자료, 기록, 역사, 활동, 변화, 힘을 만들어 낸 물리적이고 실체가 있는 세상의 거점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고민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은 '조직'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서 그것이 잘못되고 유지되지 못하게 될까봐, 라는 막연하고 큰 부담과 걱정으로 다른 점들이 후순위가 되거나 부차적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점입니다.

반성폭력 운동, 장애여성운동, IL 운동이 주는 비전

이런 지점에 진은선 발제자님이 말씀해주신 리더로서의 고민과 부족한 점, 차별할 수 있는 위치를 돌아보고 계속 고백하기, 논의에 내놓기라는 지점, 그리고 장애만을 유일한 차별이자 억압으로 사고하지 않는 교차적 관점, 일방적 서비스가 아니라 상호 돌봄, 차이를 포함하는 근원적 동등함의 모색이라는 관점은 중요한 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과 운동의 주제와 의제, 거기에 담긴 방향과 관점이 운동의 방법론과 조직론도 구성하게 되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성폭력 운동을 하면서 저 역시 우리 사회 모든 곳에 자연화, 정상화되어 있는 성별권력관계를 감지하는 감수성, 섹슈얼리티 위계, 도구화, 착취를 감지하고 그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배우고 체화했습니다. 동시에 일상화, 정상화되어 있는 규범과 관습을 뚫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말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더 안전하고 평등한 문화를 열어가는 피해자, 생존자들의 힘과 용기를 배워왔습니다. <보통의 용기> -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위한 DIY 가이드북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피해자 리더십'이라는 말에 담아낸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 리더십이라는 말을 고민, 고안했던 이유는 성폭력이 발생한 공간이나 조직, 문화권에서는 성폭력 문제제기를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거부감을 느끼고 의도적/비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배제된 구체적인 피해자, 밀려난 구체적인 발언자가 존재하고, 반감과 저항감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큰 사회흐름으로 보면 변화가 만들어져온 역사입니다. 이 사이에서 피해 발화자, 문제제기자가 하고 있는 역할을 다시 자리매김해보고 싶었습니다.

장애판, 장애운동판에도 성별권력관계, 섹슈얼리티 위계화, 착취의 문제와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회문제들 중에서도 한 사람의 몸의 습관, 욕망의 코드, 관계의 문법과 규범, 집단의 승인과 금기를 이루고 있는 문제 - 섹슈얼리티나 성폭력, 성산업화 등의 문제도 그 중 일부로서 누군가 자신의 몸과 삶의 이야기를 건 문제제기가 쌓이고 쌓여야 정상화/자연화되고 체현된 이데올로기를 부수어갈 수 있습니다. 이론과 공부는 이 과정에서 참고삼아 가야 합니다.

진보운동판 안에서의 성폭력, 시민사회 출신 인사가 연루된 성폭력, 진보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치인사가 행위한 성폭력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말하고 여성들이 함께 싸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착취하고 도구화할 때는 소속되어 있던 여성이, 거부하고 싸우기 시작하자 그 목소리와 존재가 거절되는 해당 영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평등/성

폭력/여성 의제는) 부차화하기 위해 부차화하는 행태를 보면서 저들의 세계는 결국 다른 방향과 가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목소리 내기를 멈출 수 없지요. 어떤 세계든 동일한 사람들만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과 정도가 달라지는데,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등장하고 조직되는데 사회운동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OO판을 흔들자, 어떤 판을 어떻게 흔들까?

토론회 제목이 '젠더적 관점으로 II판을 흔들자' 인데요. II판과 장(애차별철폐운동)판이 발제자와 주최측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판'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판, 이라는 말은 피부에 와 닿는 자연스런 감각과 경험일 수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겠죠.

II 판에서 발제자들이 부딪히고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나 더 궁금해집니다. 회의에 갈 때 기대와 긴장도는 어떤지, 발언은 언제 얼마나 하고 오는지, 내 의견으로 결정이 바뀐 적이 많은지, 내가 생각하는 기여도와 남이 생각하는 기여도는 어떤지, 그 판이 우리 판이라고 내 동료들에게 어떤 말투와 노력으로 말해왔고, 말하고 있는지 등등이 말입니다. 무엇에 실망했고, 그것을 누구와 어떻게 나눴고, 무엇을 배웠는지도 궁금합니다.

OO판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과정은 지금 시대에 중요한 정치적인 책임이자 행위라고 생각해요. 서울시가 나서서 어디어디 협의회에 보조금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고, 지금은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앞으로 협의회를 줄일 생각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는 시점이지요. 이 와중에 정부가 주도하는 엄벌주의, 시장이 선도하고 정치권이 부추길 효율적 개인주의, 운동단체들도 매여 있는 제도화-서비스화에 맞서서 운동의 자율성과 확장성을 지키고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속한 OO판이 어떤 모습인지, 앞으로 어떤 모습일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성주의자 활동가들의 더 너른 연대활동, 더 다양한 매개자로서의 활동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평등한 조직 문화로 나아가기 위해선 도전적 질문을 멈춰서는 안 된다!

김상희(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장애인 운동의 현장은 치열함과 절박함의 사안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다. 비장애중심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확보되지 못한 채 방구석이나 감옥 같은 시설 안에서 몇십 년 간 살아온 중증장애인들의 치욕스러운 세월을 되돌릴 수 없지만, 장애인 운동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이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긴박하게 돌아가는 투쟁 일정 속에 가끔 무엇을 잊고 가는 건 없는지, 무엇을 놓고 가는 건 없는지에 생각하게 된다. 왜 집회 발언자 대부분이 장애/남성인가? 젠더 관련 투쟁 현장에는 극소수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만 나오는지? IL센터 소장은 90%가 장애남성인지? 등의 물음이 불쑥 머릿속에서 튀어나온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세상으로 바꾸고 싶은가에 질문을 던져 보고 싶다.

장애인의 기본권과 장애여성의 기본권

전국 협의회센터 90여 곳 넘는 IL센터에서 장애여성인 소장은 몇 군데나 될까? 물론 센터 소장의 성별 분포로는 성평등 여부를 다룰 수 없다. 장애여성 소장이라고 해서 그 조직이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장애여성 활동가들은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지만, 그녀들을 조직 내에서 리더 혹은 소장이나 대표로는 왜 만나기 힘든 것인가? 이다.

장애인의 기본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한국 사회에서 최소한의 권리라도 되찾기 위해 장애인 운동은 늘 목숨을 담보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 2000년 초부터는 중증장애인들의 권리 확장 운동으로 전환되며, 장애인 당사사성이 강조된 운동으로 나아갔다. 운동이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 관료자들과 협상력이 생기고, 협상이 결여될 땐 격렬한 몸싸움을 하며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장애여성 의제는 중심부가 될 수 없었으며 소수의 장애여성 활동가만이 리더로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

내가 장애여성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연대 회의체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돌아오는 날이 많았다. 당장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동할 수 없는 문제로 싸워야 하는데,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관한 사안이나 성폭력 문제를 논의하자고 말할 수가 없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장애여성에게 엘리베이터 설치만큼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희롱이나 무시를 받지 않을 권리 또한 중요한 사안이자 장애여성의 기본권인데 나는 그 회의안에서 말할 수 없었다. 그렇게 장애인 운동 연대체 회의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왠지 모를 자괴감이 들었다. 나는 왜 세련되고 정리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할까? 나는 왜 장애여성 사

안에 대해 연대체 사람들처럼 끈질기게 말하지 못 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하며 나 자신이 리더로서의 자질을 없음으로 인정해 갔던 기억이 남아 있다. 그리고 장애여성 운동하는 중증장애여성 활동가로 장애인 운동에 주체로써 참여보다 구색맞추기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며 고립된 느낌도 받았다.

장애여성 활동가로서 리더로 설 자리는 어디에 있나?

숨센터가 처음 개소할 당시에 외부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았다. 이는 장애여성 IL센터 정체성을 부정당하며 공개 토론회에서 전장애유형 포괄이라는 IL운동 이념을 훼손시키는 센터로 공개 처형하는 듯한 분위기도 겪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견디며 숨센터가 지금까지 굳건히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나는 장애여성 운동의 성과이자, 장애인 운동의 변화 혹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난 지금, IL센터 혹은 장애인 운동 내에서 장애여성 이슈를 다루고 활동의 형태로 드러냈던 곳은 몇 군데나 있을까? 또한 새로운 장애여성 리더는 몇 명이 나 더 활동하게 됐을까? 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내놓기 어렵다. 아직도 IL센터 중에는 가부장제 문화를 답습하는 사업과 다양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고민 대신 이성애 소개팅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홍보물을 보게 된다. 집회 현장에서는 늘 비슷한 발언자가 섭외되거나 장애/남성 활동가들이 대부분 마이크를 잡고 있다. 발언할 장애여성 활동가가 정말 없는건가?(현장 발언 기피하는 나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면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하여 울림을 주며 호소력 있는 (장애/남성)활동가를 알게 모르게 선별해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내부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발제문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현재 센터는 실무력 중심의 IL센터로 변화되고 있다. 실무 능력이 없으면 이제는 센터 상근 활동가로 진입조차 힘들다. 내년에 있을 서울시센터지원사업 평가가 상대평가로 전환된다면 더욱더 실무형 활동가 혹은 직원들로 채워져 갈 것이다. 쏟아지는 서류를 감당하려면 한 사람이 오르지 본인의 몫의 역할을 해야 한다. 예전처럼 서로의 업무를 보조해가며 했던 구조와 다른 구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조직 내에서 장애여성 활동가 위치를 더 좁게 만들고 관점과 고민의 방향보다 실무력만으로 개인이 평가받는 구조가 되어 장애여성 활동가들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어쩌다 살아남았다 해도 업무 시간 두배를 더 쓰며 자기 몫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를 해야 할 것이다. 나 역시 각종 서류와 업무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급급해서 무엇을 고민하고 확장해 나갈지 생각 못하고 지나가는 나날이 많다. 누군가의 업무를 보조할 때면 나도 모르게 '이 정도는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이 사실 중증장애여성 활동가인 나의 위치를 언젠간 갈아먹는 것이란 예상을 못 한 채 말이다. 우리는 특정 사람이 배제와 소외당하는 공간에서 언젠가는 그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을 잘 못한다.

제도화된 운동을 경계하지 못한다면 곧 낭떠러지 운동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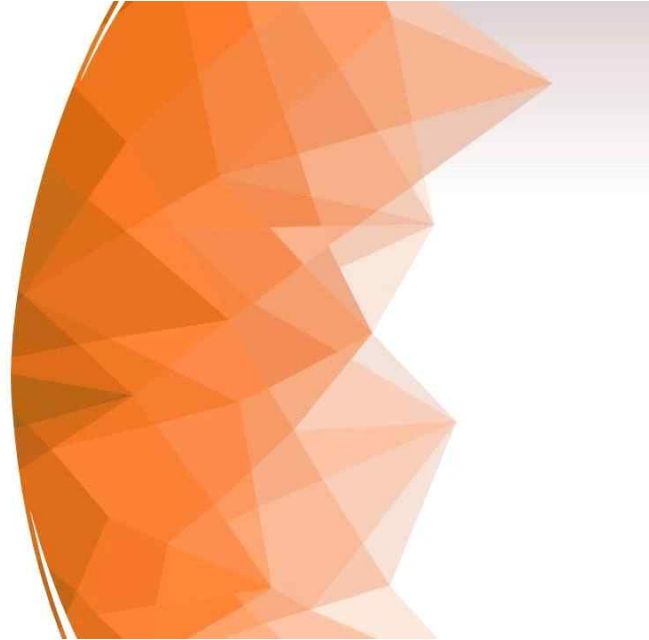
제도화된 자원이 운동에 유입되며 활동은 안정화되었다. 안정함이 거듭될수록 도전 의식은 약해진다. 그러나 그 안정감에 취해 있을수록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 있다. 추락하지 않으려면 경계해야 한다. 질문을 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진보적 운동을 할 것인가? 더 나은 의식을 위해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선언적인 질문이 아니라 활동가로 활동하기 위해 잊어선 안 될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질문을 내가 있는 조직 내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이곳에 왜 있을까? 우리가 하는 활동(사업)이 운동적인 의미가 충분히 담고 있는가? 나는 이곳에 누구와 동료로 맺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 이 질문들이 지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비로소 성평등한 조직 문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운동 현장에서 젠더적관점 논의를 위한 고민과 실천

정다운(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실장)

장애인운동 현장에서 젠더적 관점 논의를 위한 고민과 실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다운 정책실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평등위원회 위원)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현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실태 및 자립생활 운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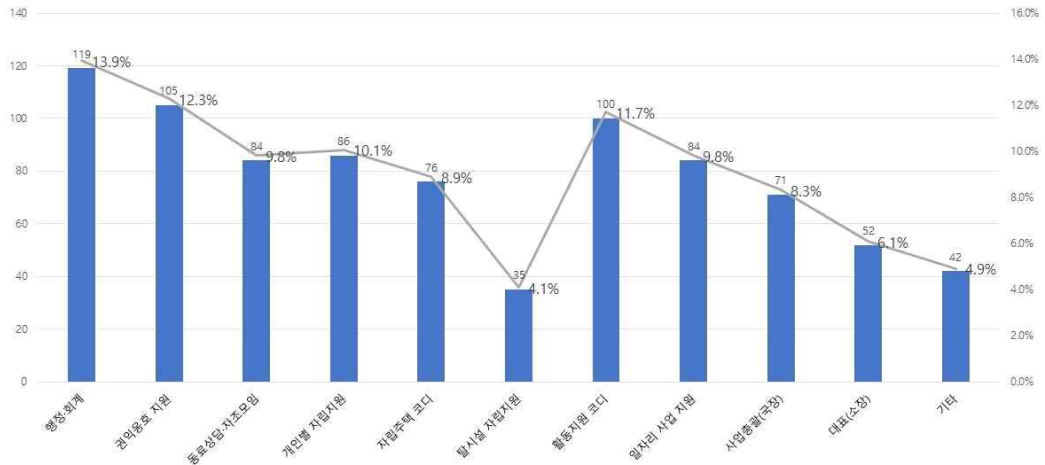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센터의 현재를 진단하고 장애인자립생활운동 조직화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하여 실시

조사 참여자 현황

88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근자 666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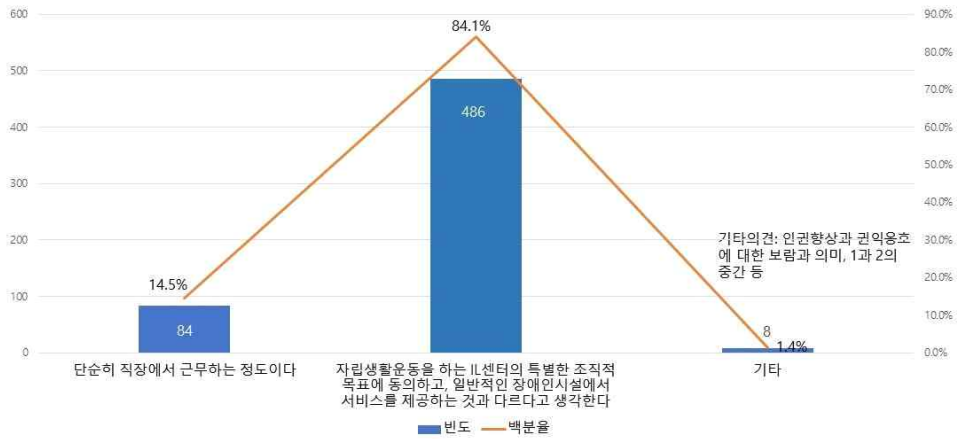


센터 활동가의 현재 담당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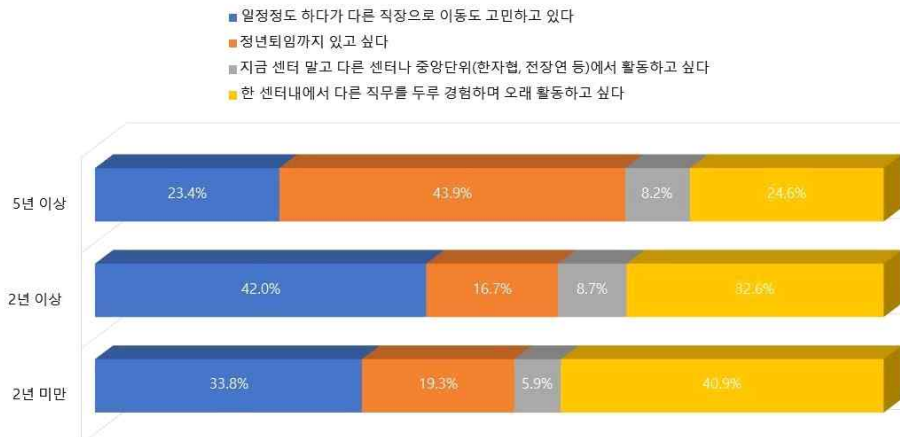
- 행정 회계 업무 담당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20.7%), 그 다음으로 권익옹호(18.2%), 활동지원 코디(17.4%), ILP 14.9%, 동료상담/자조모임(14.6%), 일자리 사업 지원(14.6%), 자립생활주택(13.2%) 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근의 의미



▶ 센터 활동가들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의 상근을 “자립생활운동을 하는 IL센터의 특별한 조직적 목표에 동의하고 일반적인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고, “단순히 직장에서 근무하는 정도”로 인식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속 희망 정도



[그림] 조사 참여 활동가의 근무기간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속 희망 정도 비교(중복응답)

활동가로서의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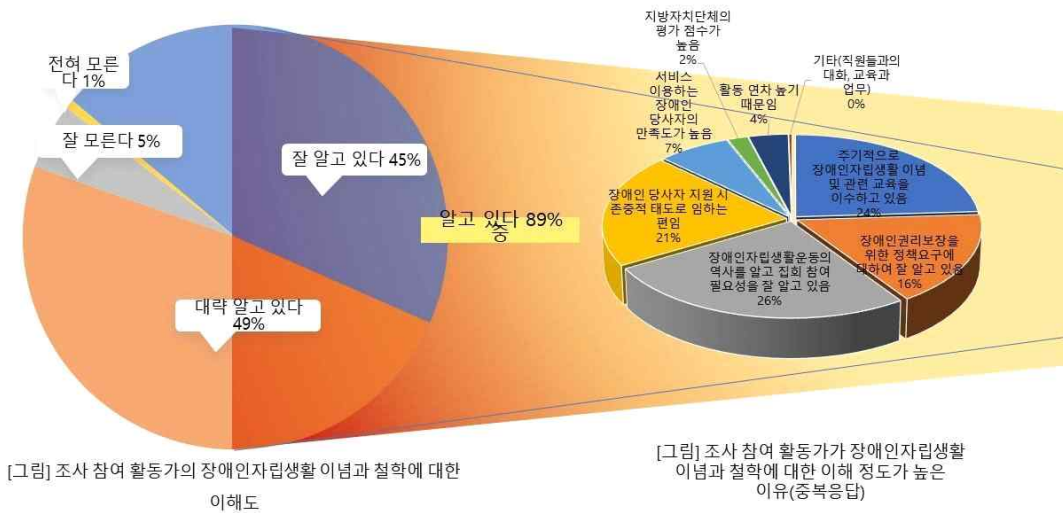
<표> 조사 참여 활동가의 연령대별 활동가로서의 인식 정도 비교(중복응답)

구분	20대 (n=105)	30대 (n=158)	40대 (n=182)	50대 이상 (n=130)	전체
활동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활동가가 되고 싶다	16(15.2)	12(7.6)	16(8.8)	18(13.8)	62(10.8)
활동가이기보다 나는 직원이다	44(41.9)	43(27.2)	45(24.7)	21(16.2)	153(26.6)
모두가 활동가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38(36.2)	90(57)	111(61)	91(70)	330(57.4)
직원 관계로만 있고 싶다	14(13.3)	20(12.7)	17(9.3)	2(1.5)	53(9.2)
기타(활동가이다, 활동에 따라 다르다 등)	4(3.8)	8(5.1)	7(3.8)	3(2.3)	2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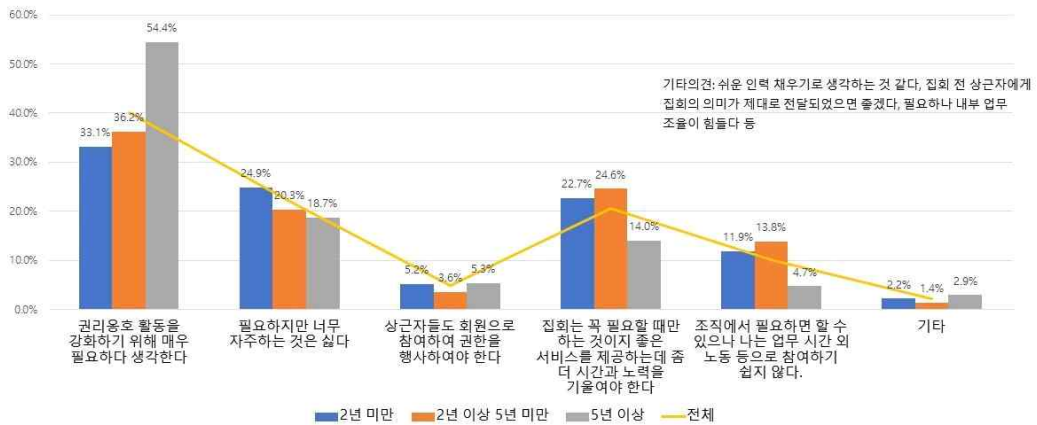
<표> 조사 참여 활동가의 근무기간별 활동가로서의 인식 정도 비교(중복응답)

구분	2년 미만 (n=267)	2년 이상 5년 미만 (n=137)	5년 이상 (n=171)	전체
활동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활동가가 되고 싶다	38(14.2)	9(6.6)	15(8.8)	189(32.7)
활동가이기보다 나는 직원이다	85(31.8)	44(32.1)	24(14)	150(26)
모두가 활동가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130(48.7)	74(54)	126(73.7)	150(26)
직원 관계로만 있고 싶다	25(9.4)	12(8.8)	16(9.4)	42(7.3)
기타(활동가이다, 활동에 따라 다르다 등)	13(4.9)	8(5.8)	1(0.6)	197(34.1)

장애인자립생활이념과 철학 이해 정도 및 이해 수준이 높은 이유



센터 집회 조직에 대한 인식



[그림] 조사 참여 활동가의 센터 집회 조직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근무기간별

- 비교
- 센터의 집회 조직에 대해 활동가들은 "권리옹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필요하지만 너무 자주하는 것은 싫다"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집회는 꼭 필요할 것이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좀 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센터 집회 조직에 대한 인식 - 현재 담당 업무와 비교

<표> 조사 참여 활동가의 현재 담당 업무에 따른 센터 집회 조직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중복응답)

		센터 집회 조직에 대한 인식						
		권리옹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 생각한다	필요하지만 너무 자주하는 것은 싫다	상근자들도 회원으로 참여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집회는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좀 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직에서 필요하면 할 수 있으나 나는 업무 시간 외 노동 등으로 참여하기 쉽지 않다	기타	계
현재 담당 업무	개인별자립지원	36(41.9)	14(16.3)	5(5.8)	19(22.1)	10(11.6)	2(2.3)	86(100)
	거주시설탈시설	14(40)	8(22.9)	1(2.9)	7(20)	4(11.4)	1(2.9)	35(100)
	권익옹호	56(53.3)	16(15.2)	3(2.9)	16(15.2)	11(10.5)	3(2.9)	105(100)
	동료상담자조모임	44(52.4)	11(13.1)	6(7.1)	17(20.2)	6(7.1)	0(0)	84(100)
	일자리사업	30(35.7)	18(21.4)	4(4.8)	19(22.6)	12(14.3)	1(1.2)	84(100)
	자립생활주택	18(23.7)	20(26.3)	4(5.3)	20(26.3)	10(13.2)	4(5.3)	76(100)
	활동지원코디	23(23)	28(28)	5(5)	24(24)	17(17)	3(3)	100(100)
	행정회계	41(34.5)	30(25.2)	3(2.5)	25(21)	19(16)	1(0.8)	119(100)
	단체대표(소장)	39(75)	5(9.6)	2(3.8)	6(11.5)	0(0)	0(0)	52(100)
	사업총괄(사무국장)	46(64.8)	15(21.1)	2(2.8)	5(7)	0(0)	3(4.2)	71(100)
기타	16(38.1)	7(16.7)	0(0)	12(28.6)	6(14.3)	1(2.4)	42(100)	
소계	231(63)	126(29.9)	28(6.1)	119(29.5)	59(16.5)	13(3.3)	576(148.3)	

- 자립생활주택, 활동지원코디 등 현장 지원 또는 사무 업무가 많은 업무의 경우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특성을 보였고, 소장, 사무국장, 권익옹호, 동료상담자조모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센터 집회 조직에 대한 인식 - 전장연 지하철 행동 간 인식 차이 비교

<표> 조사 참여 활동가의 센터 집회 조직에 대한 인식에 따른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에 대한 인식 차이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에 대한 인식					기타	계
		긍정적이며 매우 필요하다 생각한다	동의하지만 지하철 연착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조직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의하지 않고 참여하고 싶지 않다			
센터 집회 조직에 대한 인식	권리옹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 생각한다	127(54.7)	89(38.4)	13(5.6)	1(0.4)	2(0.9)	232(100)	
	필요하지만 너무 자주하는 것은 싫다	25(19.7)	90(70.9)	8(6.3)	2(1.6)	2(1.6)	127(100)	
	상근자들도 회원으로 참여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7(25)	16(57.1)	5(17.9)	0(0)	0(0)	28(100)	
	집회는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좋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좀 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3(10.9)	84(70.6)	10(8.4)	11(9.2)	1(0.8)	119(100)	
	조직에서 필요하면 할 수 있으나 업무 시간 외 노동 등으로 참여하기 싫다	5(8.5)	41(69.5)	5(8.5)	8(13.6)	0(0)	59(100)	

■ 센터의 집회 조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고, 집회 조직에 대해 다소 부담스러워 하는 집단의 경우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에 대해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장연 개인회원 가입과 전장연 지하철 행동에 대한 인식 차

이 비교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에 대한 인식					기타	계
		긍정적이며 매우 필요하다 생각한다	동의하지만 지하철 연착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조직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의하지 않고 참여하고 싶지 않다			
전장연 개인회원 가입여부	가입했다	107(45.9)	107(45.9)	14(6)	2(0.9)	3(1.3)	233(100)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가입하지 않았다	21(21)	59(59)	10(10)	8(8)	2(2)	100(100)	
	잘 몰라서 안했다. 필요성을 인식하면 하겠다	44(21.2)	142(68.3)	15(7.2)	5(2.4)	2(1)	208(100)	
	전장연 활동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	3(17.6)	5(29.4)	2(11.8)	7(41.2)	0(0)	17(100)	
	기타(기관 단체 회원, 가입 유무 모름)	4(20)	12(60)	0(0)	1(5)	3(15)	20(100)	

■ 전장연 개인회원 가입자의 경우 지하철 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식
 ■ 전장연 개인회원 미가입자라도 가입 의사가 있는 집단 역시 지하철 행동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
 ■ 다만 전장연 개인회원 가입자 또는 가입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도 지하철 행동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현재 담당 업무와 전장연 개인회원 가입여부 비교

	전장연 개인회원 가입유무					계
	가입	미가입	필요시 가입	전장연 인정 안 함	기타	
개인별자립지원	35(40.7)	17(19.8)	31(36)	1(1.2)	2(2.3)	86(100)
거주시설탈시설	15(42.9)	9(25.7)	10(28.6)	0(0)	1(2.9)	35(100)
권익옹호	43(41)	22(21)	33(31.4)	1(1)	6(5.7)	105(100)
동료상담자조모임	41(48.8)	14(16.7)	22(26.2)	3(3.6)	4(4.8)	84(100)
일자리사업	24(28.6)	20(23.8)	36(42.9)	3(3.6)	1(1.2)	84(100)
자립생활주택	20(26.3)	18(23.7)	34(44.7)	1(1.3)	3(3.9)	76(100)
행정회계	40(33.6)	20(16.8)	52(43.7)	4(3.4)	3(2.5)	119(100)
활동지원코디	30(30)	20(20)	43(43)	4(4)	3(3)	100(100)
단체대표(소장)	42(80.8)	4(7.7)	3(5.8)	0(0)	3(5.8)	52(100)
사업총괄(사무국장)	47(66.2)	10(14.1)	8(11.3)	0(0)	6(8.5)	71(100)
기타	13(31)	6(14.3)	18(42.9)	4(9.5)	1(2.4)	4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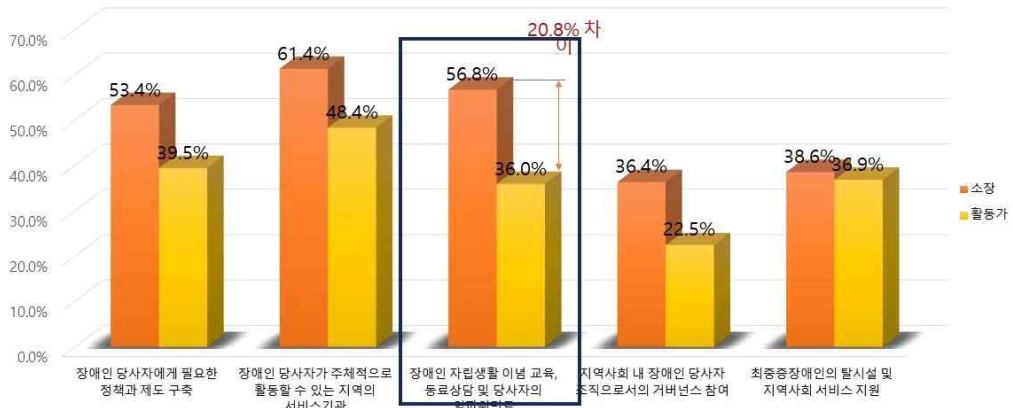
- 현재 담당업무가 센터 내 경력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담당할 수 있는 대표, 사업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활동가들의 전장연 개인회원 가입 비율이 높은 반면
- 일자리사업, 자립생활주택, 행정회계, 활동지원코디와 같은 업무가 저경력 활동가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음

현재 담당 업무와 전장연 지하철 행동에 대한 인식 비교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에 대한 인식					기타	계
	긍정적이며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의하지만 지하철 연착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 좋겠다	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조직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의하지 않고 참여하고 싶지 않다	기타		
개인별자립지원	20(23.3)	51(59.3)	11(12.8)	2(2.3)	2(2.3)	86(100)	
거주시설탈시설	7(20)	22(62.9)	3(8.6)	1(2.9)	2(5.7)	35(100)	
권익옹호	42(40)	51(48.6)	9(8.6)	2(1.9)	1(1)	105(100)	
동료상담자조모임	35(41.7)	38(45.2)	8(9.5)	1(1.2)	2(2.4)	84(100)	
일자리사업	20(23.8)	53(63.1)	7(8.3)	4(4.8)	0(0)	84(100)	
자립생활주택	14(18.4)	49(64.5)	7(9.2)	3(3.9)	3(3.9)	76(100)	
행정회계	29(24.4)	75(63)	9(7.6)	5(4.2)	1(0.8)	119(100)	
활동지원코디	19(19)	69(69)	4(4)	6(6)	2(2)	100(100)	
단체대표(소장)	29(55.8)	16(30.8)	6(11.5)	0(0)	1(1.9)	52(100)	
사업총괄(사무국장)	32(45.1)	34(47.9)	3(4.2)	1(1.4)	1(1.4)	71(100)	
기타	15(35.7)	23(54.8)	0(0)	3(7.1)	1(2.4)	42(100)	
소계	178(45.5)	324(83.5)	41(11.6)	23(4.9)	10(2.8)	576(148.3)	

- 소장, 사무국장 등 대표 또는 실무 총괄을 담당하는 활동가들은 지하철 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자립생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활동가들의 경우 동의하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 좋겠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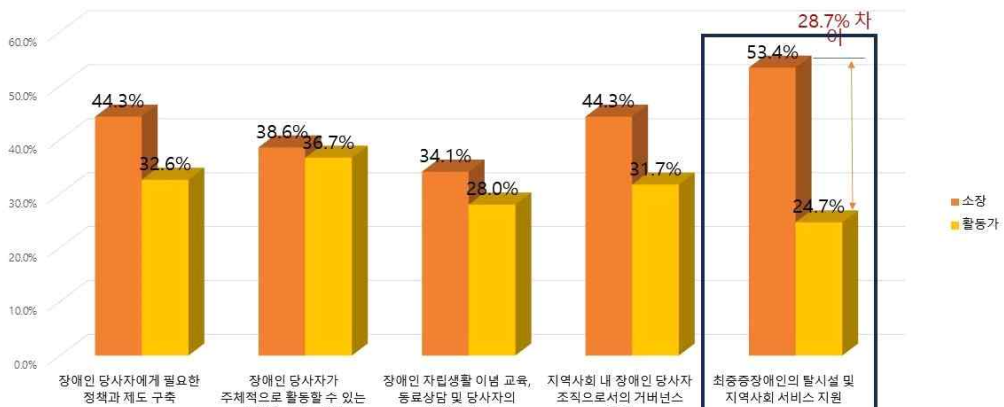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중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분야



[그림] 조사 참여 센터 활동가의 직급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중 비중을 두는 활동에 대한 인식 비교

-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중 잘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분야로 소장과 활동가 모두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의 서비스 기관" 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소장 61.4%, 활동가 48.4%),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 교육, 동료상담 및 당사자의 임파워먼트"(소장 56.8%, 활동가 36.0%),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 구축"(소장 53.4%, 활동가 39.5%) 분야의 경우 소장과 활동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최중증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분야는 가장 낮게 평가되었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중 부족하거나 강화되어야 하는 분야



[그림] 조사 참여 활동가의 직급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중 부족하거나 강화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한 인식

-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중 부족하거나 강화되어야 하는 분야로 소장은 "최중증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53.4%), 활동가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의 서비스 기관"(24.7%)을 각각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 ▶ 특히 "최중증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의 경우 소장과 활동가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소장 53.4%, 활동가 24.7%)

결론 및 제언

1. 센터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부분 법령 등에서 규정한 장애인 자립생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가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예산 지원 규모와 상근 인력에 따라 사업 유형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조사 참여 센터 중 17%는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상근 인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재원 구조 확보가 필요하며, 장애인 직원 채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결론 및 제언

2. 센터 내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역할에 대해서

- 센터 활동가들은 대체로 센터 내 장애인 당사자의 역할이 센터 내에서 중요한 역할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였고, 그 이유로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인 당사자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상근 인력 채용 노력과 함께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시 장애인 당사자의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동료상담과 권익옹호 활동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인 채용 노력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의 역할 확대와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결론 및 제언

3. 센터 활동가의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 센터 활동가들은 행정회계, 권익옹호, 활동지원 코디, 자립생활훈련프로그램, 동지상담/자조모임, 일자리 사업, 자립생활체험주택 등 다양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근무기간이 길수록 책임과 리더를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행정회계와 권익옹호와 같은 업무는 경력이 높아도 계속 담당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음
- 현재 업무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근무기간 또는 연령대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를 보였음. 특히 근무기간이 길수록 조직 내 갈등이 심해서 힘들거나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경향을 보였고,
-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하고 오래 하고 싶어 했으나 급여가 낮아서 힘든 점은 점차 줄어들며,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업무를 하고 싶어하는 경향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 소장과 활동가간 근무 어려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소장이 전반적인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었고, 소장은 장애인 당사자 참여 부족, 소장의 리더십 부족, 장애인 상근자 채용 및 양성의 문제에 대해 주로 힘들어 하고 있었고, 활동가들은 급여가 너무 낮은 점, 지자체 관리 감독 등에서 소장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결론 및 제언

3. 센터 활동가의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 센터 활동가들 대부분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의 상근을 일반적인 복지시설의 근무와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모두가 활동가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활동가로서의 강한 의지를 대체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가급적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어했으며(전체의 60.1%),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른 곳으로의 이동 의지는 줄어들고 현재 일하는 곳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따라서 센터 활동가들이 센터 내 상근/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처우 개선/역량강화 교육/다양한 활동 경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결론 및 제언

4. 센터 활동에 대해

- 센터 활동가들은 대체로 자립생활 운동 이념과 철학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센터의 집회 조직의 인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전체 조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센터 내 집회 활동을 권리옹호 활동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전장연 지하철 행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센터 활동가들은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을 완전히 지지하기보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주로 갖고 있었음.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전장연 지하철 행동/개인회원 가입 여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었으며 센터 종사자의 처우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단일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도 필요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센터 내 활동가들을 위한 자립생활 운동과 철학에 대한 교육과 교양 등과 함께 현장 중심의 집회/투쟁 등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권리옹호 중심의 한자철 소속 센터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결론 및 제언

5. 센터의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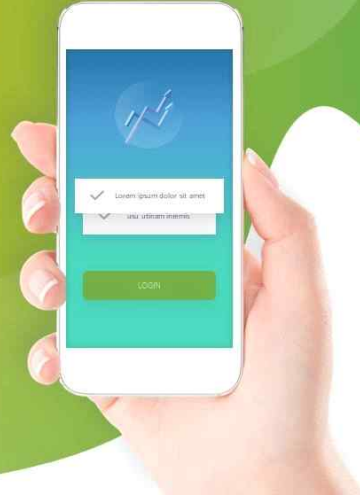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비중을 두는 역할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 구축"이 가장 높았고, 활동가의 경우 "최중증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소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인식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중 잘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분야로 소장과 활동가 모두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의 서비스 기관"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소장 61.4%, 활동가 48.4%),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 교육, 동료상담 및 당사자의 임파워먼트"(소장 56.8%, 활동가 36.0%),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 구축"(소장 53.4%, 활동가 39.5%) 분야의 경우 소장과 활동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최중증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분야는 가장 낮게 평가되었음. 현재 강점을 보이는 활동을 통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활동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결론 및 제언

5. 센터의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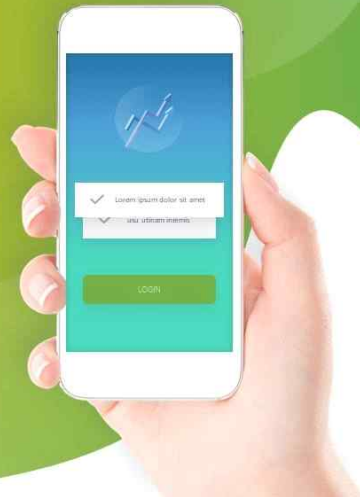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중 부족하거나 강화되어야 하는 분야로 소장은 "최중증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53.4%), 활동가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의 서비스 기관"(24.7%)을 각각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특히 "최중증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의 경우 소장과 활동가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소장 53.4%, 활동가 24.7%). 이에 따라 향후 활동에서는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 및 관련 활동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전체적으로는 "상근자들의 회원 참여를 통한 권한 행사", "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가장 선호하였음, 따라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민주적 운영 구조 확립을 위하여 총회 중심의 의결구조 확립과 함께 상근자들의 참여 독려 필요



결론 및 제언

6. 한자협 사무국에 바라는 점

- 한자협 사무국에 대해 소장과 활동가 모두 센터 운영, 행정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이중 소장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체성 확립, 장애인서비스 및 센터 예산 확보 투쟁에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 활동가들은 장애인 정책 등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체성 확립, 장애인서비스 및 센터 예산 확보 투쟁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한자협 사무국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적으로 컨설팅/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많은 장애 관련 현안 과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한 사회복지현장

사람을 집단으로 구분하는 행위에는 딜레마가 따른다. 장애, 나이, 출신 국가, 가족 형태, 경제적 수준 등 개인의 특성을 이유로 사람을 구분 지으면, 그 행위 자체로 인해 낙인이 생길 수 있다. 반면, 소수자가 집단으로서 정체성을 표현하고 사회에서 가시적으로 그 존재를 인정받는 것은 시민권을 획득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게다가 특정 집단이 지속적으로 불평등한 상태에 있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사회가 집단을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가 있다.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많은 경우 장애인, 노인, 아동, 한부모,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노숙인 등 어떤 집단을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골격으로 만들어져 있다. 서비스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정의하고,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장애인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대상자별 기관이 설치되곤 한다.

사회복지체계를 집단별로 만들면서 소수자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길 위험도 상존한다. 사회복지체계가 해당 집단이 열등하다는 낙인을 만들고 분리와 배제를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여성공감&비마이너 기획 연재 “교차적 관점으로 시설화 비판하기” 2편 : 사회복지체계에서 탈시설 운동의 의미: 김지혜(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조직가적 접근법

변화를 만들어 내는 많은 방법이 존재한다. 종종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은 그들을 위해 상황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 순간의 특정한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하지만, 운동들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가장 적나라한 방식으로 말하자면, 사회복지사적 접근법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 반면에 조직가는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회복지사들은 현재의 시스템을 알고 있으며, 설명 시스템이 형편없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통해 당신이 내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 반면 조직가는 당신으로 하여금 원하는 해결책을 찾고, 그 해결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계획하도록 돕는다.

조직가적 접근법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힘과 기술을 발견할 것을 요청한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지원하거나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때로는 결과가 가장 훌륭하지도 가장 효과적이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 결과가 작동한다면 그것이 최종적인 성과(bottom line)다. 때로는 당신이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빠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는 한 가지 이상의 목표가 있다는 것—즉 과업을 완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권한과 힘을 강화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더 빠른 것이 아니다.

ADAPT 권익옹호활동 조직화 매뉴얼 (Disability Organizing 101 and beyond - Organizing Manual Contents)




조직가적 접근법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건 은빛 탄환[특효책](silver bullets)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진정한 변화에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장애인법」,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대법원의 올스테드(Olmstead) 판결, 그 어느 것도 은빛 탄환이 아니다. 법률, 정책, 법원의 판결이 좋은 도어 스톱[문 버팀쇠]doorstop이나 선반 위의 장식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들은 그 자체로 해결책이나 해답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 그것들이 운동 단체들에 의해 사용되면 변화를 만드는 데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변화의 촉매제는 운동 단체다. 그리고 단체의 촉매제는 조직가, 또는 조직가들이다. (..)

우리 자신을 해결책으로 간주할 때, 우리는 마법의 탄환[특효책](magic bullet)을 찾는 것을 멈추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외부의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에게 기대를 걸기를 멈추고,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단체에 의지하기 시작한다. 바로 이것이 이 조직화라는 모험의 진정한 시작이자 첫 번째 승리다.

- ADAPT 권익옹호활동 조직화 매뉴얼 (Disability Organizing 101 and beyond - Organizing Manual Contents)



운동이란,
얼굴을 직접 보고 대화를 나누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모임을 갖고
피케팅, 행진, 시위 같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조직되는 것이다.

운동은 이렇게 (마이클 윌저)



운동은 이렇게 (마이클
알저)

한자협
동지들!

권익옹호활동가
1센터 당 3명을 조직합시다!



운동은 이렇게 (마이클
알저)

동지들!

장애여성운동가
1센터 당 3명을 조직합시다!

발행일 : 2023년 11월 23일

발행인 : 진은선, 이진희

편집인 : 진은선

발행처 :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주 소 :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 상가 409호

전 화 : 02-441-2313

팩 스 : 02-441-2328

이메일 : wdesum@daum.net

홈페이지: wde.or.kr

*이 자료집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자료집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